간호대학생의 AI 공부 기록

정답을 묻던 AI에게, 나를 시험해 달라고 했다

강의자료 정리부터 문제 풀이,
오답 복습과 시험 계획까지



간호학과 2학년
2026년 2학기 중간고사 준비

전국민 AI활용 사례 공모전 시즌 3
교육·학습 / 자기주도 학습

1. 읽을 땐 알겠는데, 문제로 나오면 어떨까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했던 건 공부할 양이었다.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실습,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간호약리학, 건강사정까지. 간호학과 2학년의 시험기간에는 외워야 할 용어도, 이해해야 할 개념도 많았다.

자료를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ChatGPT에 설명을 부탁했다. 그런데 설명을 읽는 것만으로 내가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요청을 하나 더 붙이기 시작했다. 정리한 내용으로 문제를 내 달라고, 답은 내가 풀고 나서 알려 달라고 했다.

그렇게 ChatGPT는 강의자료를 설명해 주는 도구에서, 내 답을 받아 보고 다음 공부를 함께 정하는 학습 파트너가 됐다. 이 글은 2026년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10월 17일까지 실제로 활용한 과정을 담았다.

2. 긴 PDF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처음에는 강의 PDF와 필기를 제공하고 페이지별로 설명해 달라고 했다. 필기에서 빨간 글씨나 파란 밑줄로 표시한 부분, 교수님이 강조한 내용을 우선해 달라는 조건도 함께 넣었다.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면서도 자료의 다른 내용이 빠지지 않게 하고 싶었다.

설명이 너무 짧으면 조금 더 풀어 달라고 했고, 복습하기에 양이 많으면 줄여 달라고 했다. 건강사정에서는 교수님이 제시한 출제 목록을 기준으로 정리와 문제를 요청했다.

내가 ChatGPT를 사용한 방식은 같은 대화에서 자료 설명을 읽고, 문제를 요청하고, 내 답안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수업 범위와 어려운 부분을 다시 알려줬다. 설명과 출제를 맡기면서도 무엇을 공부할지는 직접 정할 수 있었다.

3. 정답은 잠깐 가리고, 내 답부터



문제를 만들 때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켰다. 강의자료에 있는 내용만 사용할 것, 강조한 부분을 우선할 것, 객관식은 5지선다로 만들 것. 무엇보다 정답과 해설은 내가 답안을 제출한 뒤 보여 달라고 했다.

아동간호학도 정리를 읽은 다음 객관식 문제를 요청했다. 건강사정과 약리학에서는 답안을 제출해 채점과 설명을 받고, 틀린 개념을 다시 공부한 뒤 새로운 문제를 요청하는 식으로 반복했다.

문제를 풀어 보고 나면 다음에 무엇을 물어볼지가 더 구체적이 됐다. 전체를 다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서, 헷갈렸던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문제로 확인해 달라는 요청으로 바뀌었다.

4. AI가 낸 문제에도, 내가 고칠 부분이 있었다

공부하다 보니 AI가 내 수업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었다. 약리학을 공부하던 10월 16일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초회통과라는 걸 내가 수업에서 한 번도 못들었어 결핵치료제도 isoniazid밖에 몰라”

2026년 10월 16일, 실제 학습 대화의 사용자 발언

그 용어나 다른 약물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다. 내가 배운 범위와 문제의 범위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내게는 더 많은 내용보다, 수업에 맞는 내용이 먼저 필요했다. 그래서 배운 범위를 다시 알려주고 문제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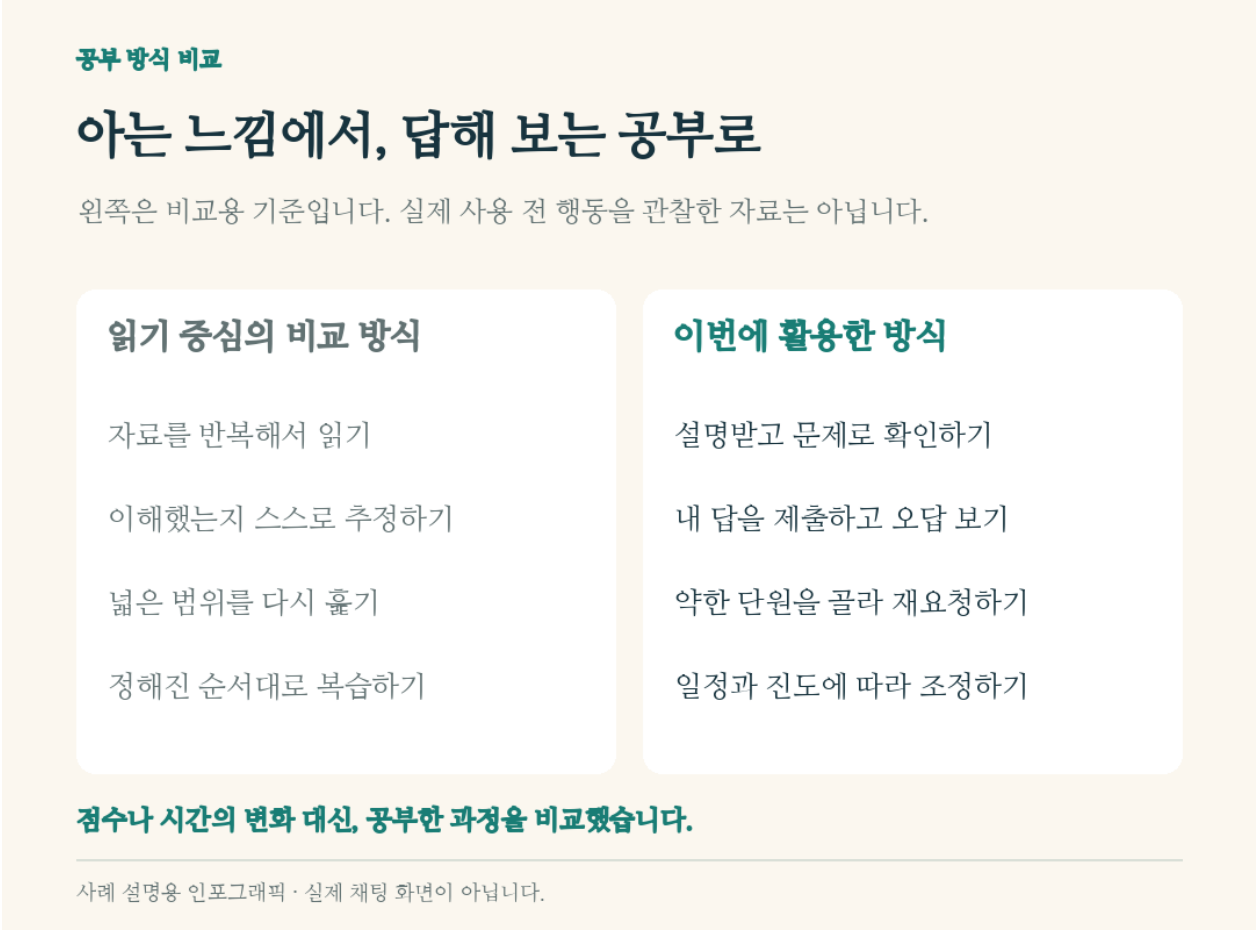
같은 날에는 근육 부분, 아편유사제, 감염 부분이 어렵다고 알리고 각각 10문제씩 요청했다. 다음 날에도 이 세 영역의 문제를 다시 요청했다. 아동간호학에서는 타임아웃, 이론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따로 골라 추가 문제를 부탁했다.

실제 요청을 따라가 보면, 역할이 보인다

학습 장면	내가 정한 것	AI에 요청한 일
10월 16일 · 약리학	어려운 영역 세 가지 지정	근육·아편유사제·감염에서 각 10문제 출제
10월 17일 · 건강사정	교수님 출제 목록으로 범위 제한	목록에 맞춘 2장 개념 정리와 문제 생성
10월 17일 · 복습 계획	2회독 상태, 과목별 시간, 취침 목표 전달	진도와 일정에 맞춘 복습 순서 제안

기존 사용자 요청을 요약한 표입니다. 실제 채팅 화면이나 AI 응답 원문은 아닙니다.

5. 모든 과목에 똑같은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시험 일정과 과목별 진도도 ChatGPT에 알려줬다. 10월 17일에는 건강사정과 아동간호학이 특히 불안했다. 두 과목을 2회독한 상태에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성인간호학에는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1시간 30분을 잡았고, 약리학은 남은 암기를 중심으로 30분을 배분했다. 새벽 1시에 자려는 계획과 건강사정·아동간호학을 마지막에 더 보려는 생각도 전달했다. AI의 제안을 보고 내가 필요한 시간을 고쳐 말하면서 복습 순서를 정했다.

이처럼 바뀐 것은 다음 공부를 고르는 기준이었다. 읽은 횟수에 더해, 문제를 풀며 어려웠던 부분과 아직 보지 못한 범위를 계획에 반영했다. 위 그림은 이런 공부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다.

6. 잘 설명해 준다고, 모두 맞는 답은 아니다



AI를 쓰면서 수업 범위가 어긋난 부분은 직접 지적했다. 그렇지만 범위에 맞는 문제라고 해서 정답과 해설까지 모두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연스럽게 읽히는 설명일수록 근거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약물명과 단위, 정답 근거를 강의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더 분명하게 챙기려 한다. 원문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거나 설명이 다르면 바로 외우지 않고, 교재나 공식 자료, 교수님의 설명으로 다시 확인할 것이다.

AI에 다시 물었을 때 같은 답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도 없다. 대화 밖의 원자료에서 근거를 찾는 과정까지 필요하다.

7. 다른 학생이라면, 이렇게 시작해도 좋겠다

내가 사용한 조건을 다른 학생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요청문으로 정리했다. 아래 글은 이번에 새로 만든 예시이며, 실제 대화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

이 자료의 범위 안에서 공부를 도와줘.
1. 페이지별 핵심을 설명하고 강조 표시를 우선해 줘. 읽기 어렵거나 근거가 없는 부분은 확인 필요라고 알려줘.

2. 객관식 5지선다 문제를 내 줘. 정답과 해설은 내가 답안을 제출한 뒤 보여줘.
3. 채점 후 틀린 개념과 자료의 근거 위치를 알려줘. 찾을 수 없는 근거는 지어내지 말아줘.
4. 내가 지정한 취약 단원은 다시 설명하고 다른 문제로 확인해 줘.
5. 시험 일정과 진도, 공부 가능 시간을 보고 복습 순서를 제안해 줘. 내가 보고 조정할게.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넣을 필요는 없다. 업로드·활용 권한을 확인한 자료에서 한 단원부터 시작하고, 개인정보나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빼면 된다.

문제를 다시 풀 때는 질문과 선택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답을 고른 이유도 직접 설명해 볼 수 있다. 정답 번호만 기억하는 복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방법은 다음 복습에 적용할 보완안이다.

8. 설명을 듣는 학생에서, 답해 보는 학생으로

이번 경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변화는 공부를 조정한 과정이다. 자료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답안을 제출했고, 약한 단원을 지정해 다시 요청했으며, 과목별 진도에 따라 계획을 고쳤다.

AI가 설명과 문제를 만드는 동안 나는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직접 답했다. 그렇게 나만의 간호학 교수님처럼 활용했지만,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은 내게 남아 있었다.

다음 공부를 시작할 때도 이 순서는 이어가고 싶다. 설명을 들었다면, 이제 내가 답할 차례다.

자료와 AI 활용 안내

이 글은 참가자가 제공한 실제 경험과 확인 가능한 기존 학습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직접 인용한 문장은 10월 16일 사용자 발언이며, 채팅 캡처를 재현한 화면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은 이번에 제작한 설명용 인포그래픽이다.

비교 그림의 왼쪽은 설명용 기준이며 실제 사용 전 행동을 관찰한 자료가 아니다. 시험 점수 상승이나 학습시간 단축은 측정하지 않았다. 생성 문항 전체의 의학적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며, 본문에서 앞으로의 검증 방법을 구분해 설명했다.

학습 도구와 원고 구성·문장 다듬기·시각자료·PDF 제작 지원에 ChatGPT를 활용했다. 강의자료·필기 원문, 학교·교수명, 시험 장소와 타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환자 정보나 임상 판단을 다루는 사례가 아니다.